

선교적 목적을 위한 실용무용의 활성화 방안

이선경(명지대학교 스포츠예술 주임교수)

김수진(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스포츠예술 강사)

논문초록

선교적 목적을 위한 실용무용 도입의 가능성

비언어적인 매체인 무용은 동일한 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전도와 타 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에서 이성이 아닌 감정, 영성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매체로서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 특히 실용무용은 오늘날 삶의 질이 변화하고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순수예술 혹은 전통춤과 반대되는 일체의 춤의 형태로 예술성보다는 사회성과 실용성, 즐거움을 강조한 생활무용 혹은 사회무용의 이름으로 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연예술 뿐만 아니라 생활무용, 사회무용 등과 같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광의적인 선교의 도구로 활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선교적 목적을 위한 실용무용이 도입되고 보편화 되기 위해서는 사회무용, 대중무용, 여가무용이라는 기존의 실용무용에 대한 의미에 복음이라는 정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하며 공연예술로서의 도약 이외에 생활무용이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교회라는 공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광의적인 범위에서의 전도와 선교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공연예술형태의 실용무용은 선교무용으로서의 메시지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교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동작어휘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 실용무용은 전 연령층에 접근할 수 있는 선교의 수단이 될 수 있으나 특별히 청소년을 비롯한 청년세대들에게 좋은 선교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오늘날의 많은 매스미디어의 발달이 현장을 방문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방송 혹은 SNS, 인터넷등을 통하여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실용무용이 선교를 위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실용무용을 이용한 선교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 선교, 실용무용, 선교무용, 생활무용, 대중무용

I 서론

1832년 한국에 처음 개신교가 전해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급변하는 한국사회의 변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증거 하기 위하여 교회는 각 시대의 문화를 수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발전시킴으로서 지속적인 선교를 행하고 있다. 동일한 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전도와 타(他)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선교는 사용하는 언어와 생활방식, 사고방식이 매우 다양함으로 접근방식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그러나 비언어적인 매체인 무용은 동일한 문화권이든 타문화권이든 이성이 아닌 감정, 영성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매체로서의 무용은 매우 좋은 콘텐츠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삶의 질의 변화로 무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의 무용이 순수예술로서의 측면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현대사회에서는 매스미디어(mass media)가 발달되면서 대중예술적인 측면에서 무용이 각광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근원적으로 무용은 극장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제의적 무용이었고, 대중적, 오락적 기능을 가진 사교무용으로 마당과 같이 넓은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었다. 순수예술 혹은 전통춤과는 반대되는 일체의 춤의 형태로서 예술성보다는 사회성을 강조하고 사상이나 감정보다는 실용성과 즐거움을 강조한 무용이며 실용무용 혹은 생활무용, 사회무용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김영란, 2011: 23). 이러한 춤은 한국사회에서 MBC의 댄싱 위드 더 스타, M-net의 댄싱 9와 핫 더 스테이지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실용무용은 관람자와 공연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는 대중문화의 특성으로(전윤주, 2015: 1)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2001년 참여하고 싶은 대중무용의 장르를 설문한 연구에 따르면, 댄스스포츠가 22.3%, 재즈댄스 14.9%, 기타 14%, 탭댄스 2.5%, 한국무용 1.4%, 발레 1.3%, 현대무용 0.7%로 대중 참여 선호도는 실용무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우경, 2001: 59) 당시 실용무용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 한국사회에서 실용무용은 사회적, 교육적 가치가 인정되어 11개의 4년제 대학, 3개의 전문대학, 11개의 학점은행제 기관에서 교육되고 있을 정도로(박영하, 2017: 149)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히 실용무용은 무용의 성격과 체육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현대인들이 원하는 정신적 즐거움과 육체적 건강을 모두 추구하기 때문에(김영란, 최경호, 2010: 10) 현대사회에서 보다 쉽게 대중문화 속에 깊숙이 파고들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인간 대 인간의 소통 방식으로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전윤주, 2015:2).

무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인간의 신체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과 댄스야 댄 수 없다(김수진, 2015:12). 말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무용은 움직임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앞서 밝힌바와 같이 선교라는 목적이 뚜렷한 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실용무용이 대중문화 속에 깊이 파고들어 인간 대 인간의 소통방식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면 충분히 선교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었다. 또한 최근 각종 실용무용대회가 개최되면서 경연의 한 장르로 선교무용 부분이 신설되어 경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선교적 목적의 실용무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실용무용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선교의 수단으로서 실용무용의 도입과 활용 가능성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현재 실용무용을 도입하여 선교에 임하고 있는 3개의 단체를 선정하여 선교의 수단으로서 실용무용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둔다.

II 실용무용에 대한 개념

1. 실용무용의 정의

각 시대마다 그 특성이 반영되어 발전되어 온 무용은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실용성과 효용성을 강조하며 실용무용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구축하였다. 국내에서 실용무용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지만 실상은 댄스아카데미, 문화센터, 사회복지관, 스포츠센터 등 사회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대학기관에서 실용무용학과를 신설하거나 실용무용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공교육에서도 실용무용관련 교과가 등장할 정도로 발전하였다(정시연, 2012: 21).

현대사회에서의 실용무용에 대해 이지혜(2011)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 을 의미하는 대중무용, ‘사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여럿이 함께 춤을 춘다’ 는 의미의 사회무용, ‘여가활동으로 무용을 통한 건강 유지’ 라는 의미를 강조한 생활무용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예술무용과 달리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비형식적이며 자유롭게 또는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신체활동으로 ‘Dance for all’ 혹은 ‘Dance as a life-long activity’ 또는 ‘생활무용’ 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이지혜, 2011:17). 이는 실용무용이 사설문화센터나 공공기관에서 재즈댄스, 댄스스포츠, 힙합댄스, 벨리댄스 등으로 개설되어 교육되었기 때문에(안유진, 2012: 109) 그 범위가 광범위하며 삶의 질 향상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중 스스로가 참여하는 예술적 개념보다 여가활동으로써의 오락성과 상업성, 대중성을 추구한다. 또한, 이렇듯 광범위한 실용무용에 대하여 김영란(2011)은 첫째, 실용무용은 예술성을 강조하는 공연예술로서의 무용이 아닌 놀이성과 직접 참여를 강조하는 여가활동 중심의 무용이며 둘째, 건강증진, 체력증진, 복지증진 및 아름다움에 대한 개인의 만족 등을 얻는 실제적인 효용성을 지니는 무용이라고 하였다. 셋째, 실용무용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중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렇듯 실용무용은 실용성, 대중성, 비전문성, 참여성, 유희성 등의 특징적 요소를 가지면서 실용무용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김영란, 2011: 26).

이상의 내용과 같이 실용무용은 예술무용의 반대적 개념으로 예술무용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일체의 무용을 실용무용이라고 이해하였다. 실용무용은 선택적 계층이 아닌 모든 이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예술성보다는 실용성과, 대중성이 전문성보다는 비전문성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무용이라 할 수 있다.

2. 실용무용의 범주

실용무용은 크게 7가지의 종류로 분류하는데 이는 실용무용이 한국에 소개된 시점에서 부터의 역사와 발전과정에서 기인한다. 실용무용이 한국사회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50년대이며 장르에 따라 그 도입 시기가 달라진다. 댄스스포츠의 경우 1950년대 청국공간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재즈댄스는 1960년대 방송국을 통해서, 에어로빅댄스는 1970년대 서울 YMCA를 통해서, 방송댄스와 힙합댄스는 주한미군방송을 통해, 벨리댄스는 1990년대에 서울힐튼호텔에서 사교댄스로 도입되었으며, 건강댄스의 경우는 1980년대에 도입되었으나 도입장소를 정확히 알 수 없다(박영하, 2015:39). 이러한 도입의 역사를 통해서 분류된 실용무용의 범주와 그 하위장르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1. 실용무용의 종류와 분류

댄스포즈		힙합댄스		방송댄스	재즈댄스	에어로빅 댄스	벨리댄스	건강댄스
모던 스탠다드 댄스	라틴 아메리칸 댄스	올드스쿨	뉴 스쿨	상업무용	뮤지컬 코미디, 시어터 재즈 펑크재즈 웨스트 코스트 재즈 라틴재즈 컨템포러리/모던 재즈 릴리컬 재즈 스트릿/힙합 스타일 재즈	유산소 체조무용	아메리칸 스타일 / 오리엔탈 스타일	요가 필라테스 줌바댄스
왈츠 탱고 퀵스텝 폭스트롯 비엔나왈 츠	차차차 자이브 룸바 삼바 파소도블 레	과워무브 스타일무브	하우스 댄스 크림핑					

실용무용이 대중문화로서 그 용도나 목적에 따라 형태가 변화되거나 종류가 세분화되고 있으며 현재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면서 더욱 세분화 되고 다양하게 분과되고 있다(박영하, 2015, 39). 실용무용의 범주화를 통해서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여가무용이자 생활무용이며 공연예술로서도 그 영역을 구축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사설기관 혹은 교육기관의 발표회가 아니더라도 단독형태의 공연이 이루어지며 공연예술로서의 흥행면에서도 순수예술과는 달리 대중성과 상업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이는 대중문화와 대중매체의 영향을 들 수 있는데 대중음악계가 아이돌문화를 형성하고 이 문화가 한류를 형성하게 되면서 실용무용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상승하였으며, 무대에서 관람하던 무용에서 미디어를 통하여 좀 더 쉽게 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미디어를 통해 방송된 무용관련 프로그램들이 무용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패널들을 함께 출연시킴으로서 보다 쉽게 무용을 설명하고 현재의 흐름을 설명하면서 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자연스럽게 친숙함을 갖게 된 것이다.

III.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무용의 개념

1. 선교무용의 정의

인류가 출현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무용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무용에서의 종교성은 원시시대부터 무용이 가지는 제의적 성격 때문에 제외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대해 쿠르트 작스는 “무용은 헌신이요, 주문이요, 기도요, 예언이 된다” 라고 하였다(쿠르트 작스, 김매자 역, 1983: 49).

특별히 성경에서는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인줄 알라.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기록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6장 19~20절의 기록을 통해 우리의 몸을 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기록하였다. 나아가 시편의 많은 말씀을 통하여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찌어다(시편 149: 3)” 라고 하였으며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춤추며 여호와의 찬양하라(시편 150:6)” 고 기록하였다. 무엇보다도 사무엘하 6장 14~16장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자신의 배움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볼 때 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최상의 상태로 인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매체이며 중요한 의례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유학자, 1997: 115).

오늘날 선교무용은 선교와 무용이 결합된 용어로 선교를 목적으로 쓰임 받는 무용을 의미하는데 보편적으로 워십댄스나 율동 등은 비전문인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선교무용은 무용을 전공한 사람들의 선교의 도구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박순자(2004)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가운데 몸짓, 율동 등 무용적인 요소를 포함한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추는 일체의 것을 선교무용이라고 하였다(박순자 2004: 84).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보여지는 기독교인들의 사명 즉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선교라고 한다면(박순자 2004: 90) 이를 위하여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무용이 곧 선교무용인 것이다. 즉,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신체라는 매체로 표현하는 무용이라는 도구가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김수진, 2013: 83) 도구가 되는 것이 곧 선교무용이며 예배 그 자체의 행위라 할 수 있다.

2. 선교에서의 무용의 역할

현대사회에서 무용은 전도나 선교에서 모두 사용되어 질 수 있는 선교의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왜냐하면 선교무용은 언어가 통하거나 통하지 않거나 신체언어를 통하여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무용과 음악 스토리, 그 외의 조명이나 의상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종합예술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시각이나 청각과 같은 감각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감성과 영성을 동시에 자극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이 부담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며 선교무용이 기독교적 내용을 신체운동을 통하여 미로 승화시켜 나타내는 예술이라면 이에 기반한 선교무용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유학자 1997:120). 첫째, 인간의 감정을 호소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위한 집회나 행사시에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응집적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안무자나 연극자가 기독교 교리와 그들의 신앙적인 경험을 표현해 냄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해설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선교무용은 주로 선교나 찬양집회를 통하여 봉사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교무용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교무용 그 자체로서 가지는 영성이 매우 중요하다. 선교무용이 하나님께 드리는 더욱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회중은 물론이거니와 안무자나 무용수 모두에게 신앙고백이 될 수 있는 작품이 창작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영성과 실력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선교무용의 주제는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선교 대상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성경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이미 기독교의 본질을 넘어서기 때문에 선교무용이 될 수 없다. 즉, 선교무용 작품 자체의 영성과 작품성을 위해서는 이를 창작하는 선교무용가의 절대적인 영성과 실력의 조화가 필요하다.

III 선교무용단체와 실용무용 선교단체

한국사회에서 선교무용단체는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각 교회와 선교단체, 교육기관, 평생교육원 등과 더불어 일반 예술단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의 선교무용단체가 교회 내에 설립된다거나 독자적으로 설립되어 생겨나고 없어지기를 반복하며 선교의 현장에서 쓰임 받고 있다.

2005년 연구된 한해진의 연구에 의하면 약 25개의 선교무용단체가 있는데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재즈댄스, CCD, 워십댄스 등과 같은 장르로 구별되어진다고 하였다. 이들 단체중에서는 하나의 장르만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각각의 장르를 교차하여 사역하는 단체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단독장르로 사역하는 단체가 아닌 2가지 이상의 장르를 포함한 종합단체가 25개 중 14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현대무용과 재즈댄스, CCD등과 같은 실용무용단체들 중 단독 장르로 사역하는 단체는 조사대상에 나타나지 않았다(한해진, 2005: 18). 그러나 2005년 연구 이후 본 연구자가 대한민국선교무용축제라는 선교무용 경연대회를 통하여 포이마, 에펠르 등의 현대선교무용 단체가 창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 단체의 춤은 현대무용과 재즈 스타일의 선교무용을 추구하였다.

학문적으로든 일반적으로든 선교무용에 대한 정의나 개념이 아직 체계를 세워나가는 시점에서 선교무용계에서도 실용무용이라는 장르에 대해서는 아직 생소하며, 자신들을 실용무용선교단체라고 소개하는 팀은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된 힙합 스타일의 춤을 보편적으로 CCD라는 이름으로 지칭하였으며, 힙합이라는 장르는 실용무용 중 하나 인 것을 앞서 실용무용의 정의를 통해 알 수 있었다. CCD란 Contemporary Christian Dance의 약자로 워십댄스 보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비트의 CCM과 힙합, 재즈 등과 같은 최신 음악의 장르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말한다. 최근 기독교 청소년들 사이에서 CCD라는 이름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문화장르로서 어깨춤부터 고도의 테크닉을 필요로 하는 동작까지 모든 스트리트 댄스(street dance, 힙합, 펑키, 랩, 팝핀, 재즈 등)를 통칭하여 일컫는다(최지연, 2013: 17).

선교적 목적의 실용무용이라 할 수 있는 CCD 즉 힙합, 재즈댄스 등이 교회 내에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느낌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7.17%가 좋은 현상이라고 보았으며 12.33%가 그저 그렇다, 모르겠다가 8.17%, 너무 세상적이라 생각이 든다가 6.17%, 기타가가 6.17%로 나타났다. 특히 이 설문에는 연령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20대의 경우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으로 다른 연령대의 2배에 달하는 수치를 나타냈다(장소희, 2003:49-50). 즉, 젊은세대를 선교함에 있어 선교적 목적의 실용무용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새로운 21세기의 시작을 앞두고 힙합이라는 장르가 크게 유행을 하였는데 힙합은 실용무용의 한 종류로 당시의 문화적 흐름에 따라 대중적으로도 많이 소개되고, 선교무용의 한 분야로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현재 선교단체 중 실용무용을 그 도구로 사용하여 선교에 임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는 'PK', '멘토', 노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단체는 힙합과 재즈댄스가 주된 춤의 장르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PK

PK는 Promise Keepers 즉,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말씀하신 이 땅에서의 기쁜 소식 증거자로써의 언약을 성취해 나아가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의미를 갖는 CCD 사역팀이다. 2000년 7월에 노방전도를 위해 활동을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79곡의 작품을 컨테츠화하여 미디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힙합스타일과 그보다 가벼운 방송댄스, 재즈댄스 스타일의 장르를 소화하고 있다.

PK 매월 10~20회의 공연, PK New-Nation Funky Praise 예배 사역과 교회사역, 캠프사역, 워십 아카데미 및 세미나, 일반 문화사역, NGO 단체 사역, 노방전도 및 고아원이나 병원, 군부대 위문 사역 등 무용을 통해 할 수 있는 다방면적인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다. 현재 이들은 15개의 세계지부가 있으며 다른 나라의 수많은 민족과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기독교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미디어 사명자들을 발굴 육성하여 소망이 없는 수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주의 사랑을 꿈꾸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멘토

멘토는 1998년 창단된 국내 최초의 힙합선교단으로 B-boy와 퍼포먼스로 사역하는 단체이며 현재는 MENTOR CREW라는 이름의 문화선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상대방의 달란트를 찾아서 그 달란트를 활용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라는 뜻을 가진 멘토는 힙합댄스를 하던 리더 류한상이 회심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으며 열린 예배를 통해 처음 춤을 선보이게 되었다. 당시에는 엄격한 머리와 요란한 복장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으며, 처음 도입하는 단계에서 오는 혼란이 가중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곧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는 뚜렷한 목적을 세우고, 춤 추는 목적이 오직 전도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해오고 있다(지효성, 2008:39).

멘토는 제자훈련, 사역, 전도, 예배, 학교설립이라는 5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예배와 그리스도의 문화를 바꾸거나 개척하려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처럼 “힙합”, “워십”, “율동”, “찬양” 등의 실력과 영성으로 보다 업그레이드 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세상을 오히려 리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2005년부터 ‘피셔스 예배를 시작하였으며 이 예배는 기독교 문화의 부흥을 위하여 여러 문화선교사역자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멘토는 정기공연과 개교회 사역 이외에 ‘세계로 나가라!’는 사명을 가지고 현재 중국과 유럽 여러 곳으로 진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뉴질랜드에 2007년에는 북경에 지부를 개설하여 사역을 하고 있다. 각종 교회사역과 학교사역, 캠프사역과 정기공연 및 자체사역, 해외 선교사역등을 감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힙합 뿐 아니라 락킹, 비보이, 그램프, 걸스힙합, 팝핀, 얼반, 발레 등의 여러 장르의 춤과 랩, 디제잉, 드라마, 밴드 등 다양한 문화적 도구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문화사역 사명 공동체로 청소년, 청년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3) 노아

노래하는 아이들의 준말인 노아는 2002년에 창단되었으며, 노아팀은 초등학교 3~6학년, 노아키즈는 6세~초등학교 3학년, 노아 틴에이저는 중·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CCD 사역단체이며 노아 Realize 청년팀과 LADY 노아라는 30세 이상의 여성팀도 구성하고 있다. 이렇듯 전 연령에 걸친 팀을 결성하고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 노아는 Good Bridge라는 슬로건으로 단체를 재정비하고 새롭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노아는 자살과 왕따로 어려워 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축복을 나누고,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온 세대 간의 화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하며, 외국 어린이 청소년들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병원과 다문화가정, 지역이동센터, 북한이탈주민 등 그 대상에 한계를 두지 않고 점차 사역방향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노아는 국내 대전, 군산, 경남김해, 구로, 파주지부 등 5개의 지부와 태국 CM, 말레이시아 MY지부와 말레이시아 KL 등 3개의 해외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노아는 소아 청소년을 위한 비만예방 DVD를 발매한 이력이 있으며 생활무용이자 건강무용으로서의 방향도 설정하고 있다. 더불어 유니세프 주관의 세계 어린이 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 역시 선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비영리 NGO단체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CCD, 댄스컬, 사회무용형식의 공연을 추구하고 있다.

이상의 선교적 목적을 위해 실용무용을 도입한 3개의 단체를 비교한 내용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실용무용을 도입한 3개의 단체 비교

	P.K	멘토	노아
창단년도	2000년	1998년	2002년
주축멤버 연령층	청년	청년	유아~중고등 청·장년
사역대상	청소년	청소년, 청년	전체연령층
홈페이지	http://cafe.daum.net/PromiseKeepers	m.cafe.daum.net/mentor486jesus	http://noa.or.kr
장르	CCD	힙합, 락킹, 비보이,	CCD

	힙합, 방송댄스, 재즈댄스	크림프, 걸스힙합, 팝핀, 일반, 발레, 랩 디제잉, 드라마, 밴드	힙합, 건강무용, 생활무용
사역 형태	PK 매월 10~20회의 공연, 예배 사역과 교회 사역, 캠프사역, 워십 아 카데미 및 세미나, 일반 문화사역, NGO 단체 사역, 노방전도 및 고아 원이나 병원, 군부대 위 문 사역 등 무용을 통 해 할 수 있는 다방면 적인 사역	정기공연, 각종 교회사역과 학교사역, 캠프사역과 정기공연 및 자체사역, 해외 선교사역	영상사역, 공연사역, 해외선교, 국내선교

상기와 같이 선교적 목적을 위한 선교단체는 창단 시점이 2000년대를 전후하여 비슷한 시점으로 나타났으며 한창 한국에서 힙합이 붐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3개의 단체 모두 청년이 주축 멤버가 되지만 노아의 경우는 유·아동을 비롯한 청소년을 주축으로 멤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역대상자 역시 주로 청소년이나 청년이었으며 이는 실용무용이 가지는 대중성, 실용성, 유희성이라는 요소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3개의 단체 모두 종합예술로서의 실용무용공연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멘토의 경우 더욱 다양한 실용무용 장르를 도입하고, 디제잉을 결합하여 새로운 기독교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3개의 단체 모두 영상사역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상을 통하여 선교적 실용무용을 보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주로 현대의 CCM음악에 맞추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다.

IV. 결론

오늘날 실용무용은 삶의 질 향상, 매스 미디어등의 발달로 예술무용보다 쉽게 일상생활에 정착하고 있다. 그래서 선교적 목적을 위한 실용무용의 도입은 재고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되었다. 그리고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오늘날 주로 이루어지는 선교적 목적의 실용무용은 공연예술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이루어졌으며 앞선 실용무용의 범주에 속하는 7가지보다 힙합댄스 혹은 방송댄스, 재즈댄스 정도의 실용무용이 오늘날의 힙합선교단 혹은 CCD 선교단체로 연결되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선교적 목적을 위한 실용무용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교적 목적을 위한 실용무용이 도입되고 보편화 되기 위해서는 사회무용, 대중무용, 여가무용이라는 기존의 실용무용에 대한 의미에 복음이라는 정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 즉, 기독교내에서 실용무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실용무용은 사회무용, 대중무용, 여가무용이라는 생활무용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계에서는 생활무용형태의 실용무용보다는 장르 중 일부인 힙합댄스, 재즈댄스 등을 활용한 공연예술형태의 실용무용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연형태 뿐만 아니라 교회 내 문화센터 등을 통한 광의적인 선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적 실용무용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며 본 연구자는 공연예술 형태의 실용무용에서는 선교적 메시지가 담겨있는가? 라는 부분과 생활무용적인 실용무용에서는 그것은 교육하는 사람이 인간의 신체나 각 동작들의 목적을 복음적으로 교육한다면 실용무용을 선교적 도구로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오늘날 다양한 장르의 실용무용이 도입되고, 사교육, 공교육기관에서 실용무용을 교육하고 활성화되고 있지만 실용무용의 전장르가 단독적인 프로그램으로 공연되어지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대중무용, 사회무용, 여가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실용무용은 공연예술로서의 도약 이외에 교회라는 공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광의적인 범위에서의 전도와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용무용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성을 가지고 실용성과 비전문성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어떤 연령층이라도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가활동으로서의 놀이성이 있기 때문에 선교대상자에 대한 폭이 넓어질 수 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진행되는 문화센터의 경우 일반의 문화센터와 달리 교회에서 강사료의 절반을 지원하기 때문에 참여자는 수업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때문에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에서 청·장년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담없는 대중무용, 건강무용으로서의 실용무용을 통한 광의적 범위에서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

셋째, 공연예술형태의 실용무용은 선교무용으로서의 메시지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교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동작어휘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힙합댄스 혹은 방송댄스, 재즈댄스와 같은 장르에서는 동작 어휘 창출을 통한 의미성을 담기보다는 다소 음악의 비트에 맞추어 안무를 하게 될 경향이 많아지므로 음악과 무용이 어우러지지 않고 테크닉적으로 변형될 소지가 있다. 이런 경우, 동작어휘가 음악과 관련이 없고 음악만 CCM을 차용한 실용무용이라면 이것이 과연 선교적 목적의 실용무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은혜는 언어를 통한다면 더욱 명확히 전달 될 수 있다. 언어가 가지는 힘은 그만큼 확실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청각을 통하여 마음에 새겨진다. 이에 반해 무용은 시각적 자극을 통해 마음에 새겨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정작 무용은 시각과 청각을 통한 오감을 자극하고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찬양하라고 하셨으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고 하셨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셨다. 이것이 곧 우리가 드릴 영적예배라고 하셨으며 그 수단이 곧 실용무용이 될 수 있다.

넷째, 선교적 목적을 위한 실용무용을 통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청년세대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다. 선교적 목적을 위한 실용무용 단체인 P.K와 멘토, 노아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21세기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지금까지 1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멘토의 경우는 실용무용 중에서도 오늘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힙합, 재즈댄스, 락킹, 비보이, 크럼프, 걸스힙합, 팝핀, 얼반, 드라마, 밴드를 통하여 공연을 하며 실제로 무대 위에 디제잉 기기를 설치하고 CCM을 비롯한 현대음악을 디제잉하며 세상의 클럽문화를 기독교적 문화로 변화시켜 사역에 임하고 있다. 기독교적인 핵심을 시대적인 감각에 맞추어 세상의 문화도 하나님의 문화로 변화시킴으로서 문화트렌드에 민감한 청소년과 청년세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선교의 도구로 실용무용을 사용하고 있다. 대중적인 음악과 움직임은 외면적 요소에 관심을 가지는 청소년들의 관심을 자극하고 기독교적 문화를 통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준다.

다섯 째, 실용무용은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실용무용은 실내이건, 실외이건 넓은 곳이건 좁은 곳이건, 국내이건 국외이건 그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별도의 의상이나 소품에 대한 제재가 크지 않다. 앞선 3개의 단체들의 사역을 살펴보면 정기공연, 해외공연, 전국 교회사역, 캠프사역을 비롯하여 길거리 전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 영상 등을 통하여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며 그야말로 전천후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나아가 현재 전 세계에 한류라는 문화 열풍이 지구촌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실용무용은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도구가 되었으며 실용무용이 선교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좋은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용무용이 선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많은 토대가 마련이 되어 있음과 그 기능이 발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선교적 목적을 위한 실용무용의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실용무용이 문화선교의 좋은 수단으로 쓰임 받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박순자 (2004). 『21세기의 기독교적 무용의 접근』 서울: 도서출판 금광
- 쿠르트 작스, 김매자 역 (1983). 『세계무용사』 서울: 풀빛
- 김수진 (2013).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선교무용의 역할”, 『한국기독교무용학회지』 2013년 제2권, 73-91.
- 김영란·최경호 (2010). “무용의 발전과정과 현황조사를 통한 실용무용 개념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4(4). 1-8
- 박영하 (2017). “21세기 실용무용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고찰.” 『대한무용학회논문집 제75권 1호』, 143-160.
- 김수진 (2015). “기독교 예술관을 적용한 무용예술의 방향.”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유학자 (1997). “무용이 한국 기독교 선교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교육학회지』 Vol.7 No.-, 109-136.
- 이우경 (2001), “대중무용 참가 실태 조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이지혜 (2011), “대중문화 환경변화에 따른 실용무용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장소희 (2003), “기독교무용의 인식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전윤주 (2015), “실용무용 공연선택요인과 관람만족도 및 재구매의향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 정시현 (2012), “한국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지효성 (2008), “문화선교의 근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 최재윤 (2003), “기독교 문화로서의 C.C.D에 대한 연구:C.C.D.(Contemporary Christian Dance)”.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한해진 (2005), “한국 기독교무용단체의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http://cafe.daum.net/PromiseKeepers>
m.cafe.daum.net/mentor486jesus
noa.or.kr